

# 당뇨병 동향 IN & OUT

## 당뇨병환자 50% 이상이 '발기부전장애' 경험 성기능장애의 교육과 적극적인 치료 필요



당뇨병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임경호 교수팀은 지난 13일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성인 남성 중 당뇨병환자들의 성기능장애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400명 이상의 종합병원 8곳에서 혈당조절을 위해 내분비내과를 방문하는 50세 미만의 남성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발기능측정(IIEF)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참여 환자의 58.7%가 발기부전 증상을 보였으며, 당화혈색소가 8%이상인 집단이 발기부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병성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교육경험에 대해서는 94%가 경험이 없었으며 90%이상은 치료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발기부전은 환자가 정서상 밝히기를 꺼려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엄격한 혈당조절과 당뇨병성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당

뇨병 교육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회 인슐린 투여, 환자의 정신적 요소에 영향 주지 않아 가톨릭대학교 김태석 교수팀,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권장

다회 인슐린 투여가(하루 3회이상 투여) 인슐린 치료 중인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불안 및 우울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병원 김태석 교수팀은 지난 13일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다회 인슐린 투여가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우울요소 및 불안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의대 성가병원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 59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다회 인슐린투여 환자와 하루 1~2회 투여환자를 분류, 병원 불안 및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의 삶의 질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사이에 연령, 성별 및 당뇨병 투병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다회 인슐린 투여가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환자에게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